하나님 느낌 속 쓰레기재활용

(예레미야 애가 3:40~66)

40.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41.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42.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43.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44.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45. 우리를 뭇 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46.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47.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느낌 속 쓰레기 재활용>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 느낌 속 쓰레기 재활용'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시작해봅니다. 바늘 하나로 코끼리 죽이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바늘로 한 번 찌르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기입니다. 두 번째는 죽기 직전의 코끼리를 바늘로 찌르기입니다. 세 번째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코끼리가 죽을 때까지 무한정 바늘로 찌르기입니다. 바로 세 번째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곧 세상에서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거나 바라는 가치들을 쓰레기로 여기는 상태입니다. 굳이 쓰레기라고 표현한 이유는 쓰레기만의 용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그마한 바늘이지만 코끼리를 죽을 때까지 찌르면 죽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좋게 여겨지는 모든 가치들이 쓰레기로 보일 때까지 하나님의 좋으심의 느낌을 계속해서 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인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속성은 좋으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에게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을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변화산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승천사건입니다.
변화산에서 하늘나라에서의 모습으로 변화되신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는 세상에서의 일들을 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을 느낄 때에 세상에서 좋다고 여겨졌던 것들을 더 이상 좋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세상을 등지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3살의 육체

로 사시던 모습 그대로 승천하셨습니다. 변화산 사건과 같은 모습으로 승천하지 않으신 이유는 제자들이 알고 따르던 바로 그 인격체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죽어서 세상을 떠나시지 않으셨고 세상에서 밀려나서 떠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인간으로 치자면 한창 때인 33살에 세상에 대해서는 한 조각의 미련도 없이 하늘로 향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건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이 이처럼 굉장한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느낌이 계속 강화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쓰레기로 여겨질 때에 비로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됩니다.
가장 쉬운 예로 돈이 대표적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돈을 좋아합니다. 내가 가진 돈이 소중한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벌어야 할 돈을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마음에서 돈에 대한 사랑이 뭉게뭉게 피어나는 삶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렇게 소중한 돈이 쓰레기로 여겨질 때까지 하나님의 좋으심에 대한 느낌을 강화시켜 나가야만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란 하나님의 좋으심에 대한 느낌을 강화시켜가는 일입니다. 이로써 세상의 가치인 돈에 대한 사랑을 끊어내고 느낌감옥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것은 너무나 보편적이지만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돈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을 통해 돈에 대한 느낌이 계속해서 강화된 결과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들이 돈을 중심에 놓고 대화하는 것을 듣습니다. 돈으로 인해 싸우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교육이 되어서 돈이 좋다는 느낌이 계속해서 강화되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에 대한 느낌을 강화시켜나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고 또한 교회가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앞서 쓰레기에는 특정한 용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돈은 본래 쓰레기가 되기 위해 존재합니다. 돈이 쓰레기로 보일 때까지 하나님의 좋으심에 대한 느낌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기준인 셈입니다. 돈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쓰레기가 되어야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을 주신 것 또한 이들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좋으심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켜 나가라고 하심입니다. 마음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평안이라는 용도를 위해서는 돈이든 가족이든 쓰레기로 여길 정도로 하나님의 좋으심에 대한 느낌을 강화시켜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또 3장 17절에서 여섯 번이나 없음을 강조한 후에 18절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계속해나가야 하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 의아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돈을 쓰레기로 보아야 한다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대체 어떻게 가족마저 쓰레기로 여기라는 것이냐?”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쓰레기는 재활용이라는 특정한 용도가 있습니다. 더 기분이 나쁘십니까? 가족을 쓰레기 취급한 것도 모자라 재활용까지 해야 하느냐는 반문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재활용의 의미를 지금부터 살펴보기로 합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서로가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평안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배우자를 미워하더라도 이러한 용도에서 쓸모를 요구했고 쓸모가 남아있으리라 여기기에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자식 간에 행복하지 못하다면 부모가 자녀를 그러한 용도를 위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는 돈도 배우자도 자녀도 쓰레기로 여겨야만 합니다.

내가 완전히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 세상의 가치들이 쓰레기로 여겨질 때까지 하나님의 좋으심에 대한 느낌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변화산 사건, 주님의 부활승천사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현장사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비롯하여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좋으심에 대한 느낌을 강화시켜 나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을 느끼게 되면 내가 그렇게 좋아하면서 바라왔던 세상의 가치들이 쓰레기로 여겨지게 되리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믿음이 강화되어서 정말로 세상의 가치들을 쓰레기로 여기게 되는 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쓰레기로 여기게 된 세상의 가치들에 대해 하나님의 뜻에 의한 재활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배우자를 재활용할 때에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자녀를 재활용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쌍히 여기게 되고 감싸주게 되는 측은지심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아직도 그들이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위한 용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이 내 뜻에 부합하지 않으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고장 난 TV나 기계는 두드리고 발로 차면 가끔 화면이 나오는데 이웃들을 그렇게 대합니다. 이웃 사랑은 기쁨과 만족이라는 용도에 대해서는 이웃 전체를 쓰레기로 여길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에 본능적으로 내게 유익이 될지 안 될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설득하거나 아부를 해서라도 친하게 지내려하고 유익이 안 되면 관계를 버리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사는 동안 정작 인간관계는 모두 거짓이 되어버립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가치들을 쓰레기로 여길 만큼 하나님의 좋으심에 대한 느낌을 강화시킨 뒤에야 합당한 재활용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재활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쓰레기로 여겨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돈도 자녀도 배우자 등도 쓰레기로 여겨야만 합니다. 심지어 내 몸의 건강까지도 마음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위해

서는 용도에 맞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영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몸의 건강도 오직 재활용으로서만 관계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관련하여 기가 막히는 말씀을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좋으심에 대한 느낌을 강화시키는 일에 실패한다면, 이전과 다름없이 이 세상 것들을 좋게 여기며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레기와 폐기물로 취급하시게 될 것임이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좋으심에 대한 느낌을 통해서 이 세상의 가치들을 쓰레기로 여기고 또 재활용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로 여기실 것입니다. 지옥으로 폐기되는 운명을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33살의 한창 때이셨던 예수님께서 단숨에 세상을 등지고 하늘로 승천하셨던 것처럼,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세상을 잊고 그 자리에서 살기를 바랐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등지고 망각하고 쓰레기로 여겨야만 합니다. 그럴 수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레기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본문 40~41절을 보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라고 하였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은 선민들의 태도가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앞서 예레미야서에서 나라가 망하고 성과 성전이 파괴됨으로 인해 선민들의 삶이 망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멸망의 탄식에 빠진 선민들은 더 이상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비로소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멸망하게 하시고 고생을 주신 이유가 바로 선민들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더는 이 세상을 바라지 않게 하려 하심이었음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본문 40~41절은 이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빛 아래에서 삶을 되돌아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42절부터 나타납니다.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저지른 자기들의 범죄가 도저히 용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어서 43절을 보면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도 그렇게 하였으리라 여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범죄함과 반역함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봅니다. 결혼하기로 약속한 남녀를 하나님과 선민으로 생각해봅니다. 결혼할 남자가 있는 여자가 남편 될 사람보다 더 좋아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남편과 있을 때보다 제3의 남자와 함께 있을 때에 더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이것이 선민들이 하나님께 저지른 반역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기쁨거리와 만족거리와 행복거리로 제공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해서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게 되었습니다. 약혼한 여자가 제3의 남자를 대상으로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남편 될 사람 입장에서는 진심으로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4절에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자 기도가 상달되지 못한 이유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을 다시 예로 들어봅니다. 하나님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혹은 "건강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업이나 건강이 아닌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근거로 제시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업이 안돼서 기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건강이 나빠서 만족할 수 없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먼저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고 나면 이러한 문제들은 쓰레기로 취급될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들을 하나님 앞에 들이대면서 이루어달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기쁨거리 만족거리로 제공하신 사랑에 대한 반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가 상달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선민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45절에 '우리를 뭇 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염두에 두고 생각할 때에 나의 유일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주신 하나님을 먼저 폐기처분해버린 것입니다. 선민들이 하나님을 쓰레기로 여겨서 폐기처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의 내막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과 만족이 되신다고요? 뜬구름 잡는 소리 그만하시죠. 능력과 사랑이 많으신 신으로 인정해드릴 테니 내게 당면한 사업문제나 해결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기도 속에 이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목회 잘되게 해주세요."라는 모든 기도 속에 내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라는 용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고백이 담겨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도에 하나님은 진노로 응답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노는 우리에게 쏟지 않으시고 죄 없는 예수님에게로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느끼듯이 이 진노의 대상이 나 자신임을 자각한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능력만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선민들이 멸망한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님께 쓰레기 취급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지구 위에 태어나서 산다는 것이 하나님께는 어떤 용도가 있을까요?

역시 기쁨과 만족의 용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실까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세상에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을 쓰레기로 여길 정도로 하나님만을 추구하며 사는 모습을 기쁨으로 삼으십니다. 이것을 위해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대단한 업적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같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도 아니며 있는 재산 다 털어서 예배당 건축에 헌금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와 하나가 된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쓰레기로 여기는 특징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과 만족이라는 용도에 대해서는 소중한 가족들마저 쓰레기로 여기고 하나님을 추구하기를 바라시고 또 그러한 순간을 기쁨으로 여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면 인간의 용도는 없습니다. 전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세례 요한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것은 망발입니다. 이런 철부지 같은 교만이 우리에게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곧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의 모습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평안의 이유로 믿고 살았던 내가 죽어야 함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문제는 끝이 나야만 합니다. 이것 말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은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서 좋다고 여겨지는 가치들이 쓰레기로 느껴질 때까지 하나님의 좋으심에 대한 느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던 것과 같습니다.

보이는 세상의 가치들을 쓰레기처럼 여기고 보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좋게 여기는 상태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이 기쁨을 위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의 뜻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쓰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레기가 되어버린 우리를 처리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 진노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내 모습으로 믿고 받아들일 자들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이나 건강 혹은 명예와 같은 귀한 가치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가족이나 애인을 비롯한 소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쓰레기로 여겨지기 위해서입니다.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라는 영역에서만은 이들이 모두 쓰레기로 여겨질 때까지 하나님의 좋으심에 대한 느낌을 강화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레기로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들을 추구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쓰레기로 여겼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십자가의 예수님과 동일시되는 대신 쓰레기로 여겨져야 할 세상의 가치들과 동일시된다면 똑같이 쓰레기로 취급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재활용의 대상으로만 상대해야 할 것입니다. 재활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쓰레기로 여겨져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쓰레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재활용을 위해 세상을 쓰레기로 만드는 것이 곧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부부가 행복하고 부모자식 간의 관계가 행복하고 설령 누군가에게 원수로 여겨질지라도 나의 행복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인간관계조차 쓰레기로 여겨질 정도로 하나님의 좋으심에 대한 느낌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모든 세상일들에 대해 십자가를 통해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일이라는 미명 아래에 행해왔던 목회나 선교와 같은 모든 일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여하는 이 세상 모든 일들에 대해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과 만족이 되신다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좋으심에 대한 느낌을 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은 완전하지 않더라도 믿음을 통해서 강화시켜 나갈수록 편해집니다. 이전에는 너무 좋아서 침 흘리던 세상에 대한 추구를 밀어내기가 점차 편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치 않기에 때로는 위선자로 여겨질 수도 있고 비난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나를 비추어 볼 때 이전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진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계속함으로써 세상이 나의 기쁨이 될 리가 없다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이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잡고 세상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좋으심에 대한 느낌을 강화시켜 나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먼저 쓰레기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재활용되기 위해서입니다.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끝장나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족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의 가치들이 완전히 쓰레기로 여겨지고 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재활용되는 사명자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지속함을 통하여 나의 마음에 기쁨과 만족의 기대를 불어넣는 세상에 대해 죽게 하여주시옵소서.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좋으심에 대한 느낌을 강화시켜 나감으로써 세상의 가치들을 쓰레기로 여기고 재활용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